

# '신유용 성폭행' 전직 코치 징역형

### 법원, 징역 6년 선고 "피의자 죄질 나빠...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신빙성 있어"

이른바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 시점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며 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석훈 기자

## 생활지리정보 '한눈에'

### 전주시, 건강·일자리 정보 등 서비스 개시

도시 곳곳에 위치한 등산로와 추천 산책코스, 상권 분석 정보, 일자리 정보, 항공사진, 구매물 정보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전주시 생활지리정보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주시 생활지리정보 서비스'(map.jonju.go.kr)는 토지와 건물 등에 존재하는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주시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 상권 분석, 공중화장실, 무료 와이파이(Wi-Fi) 등의 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종합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토지정보와 건축정보, 개발공

사가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함과 다양성을 갖춰 대민행정서비스가 실시된다.

시는 향후 생활지리정보 서비스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교통·교육·문화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추가 구축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서비스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에 오픈하는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김호성 전주시의원 물에 빠진 시민 구출

지난 16일 갑자기 내린 폭우로 급류에 휩쓸릴 뻔한 여성을 전주시의회 김호성(진북, 인후 2동, 금암 2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구조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경 전주에 시간당 약 70mm 폭우가 쏟아져 호우경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전주 덕진구 진북동 건산천을 건너던 30대 중반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자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김 의원이 이 여성에게 손을 뻗어 구조해냈다.

김 의원은 당시 주민들과 함께 인근에 천막을 치고 건산천 오염에 대한 수질개선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김 의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는데 인명피해 없이 구조해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일이려면 어떤 어려운 일에도 먼저 앞장서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40대초반의 젊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발달장애 평생학습관 설립 촉구에 모인 학부모들**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과 지립을 응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일곱 빛깔 희망 다리 만들기 및 향후 실천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적은 일곱 빛깔 희망 다리 플래카드를 들고 전북도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 빈집 정비로 주거지 재생 '첫걸음' 떴다

### 전주시, 이달 말부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본격화

전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함께 이달 말부터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LX와 함께 최근 1년 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추출한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덕진구 828호, 완산구 1220호 등 총 2048호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주택의 관리현황과 건물 안전상태 등을 거쳐 등급산정조사 및 소유자 면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주거지재생과 연계해 구도심 주거지를 보존하고 단순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주도의 정비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 속 빈집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빈집뱅크를 운영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빈집뱅크 운영 및 소유자 면담을 통해 빈집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 정

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순창 양계장서 화재 발생

18일 오전 5시22분께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축사 3개동 중 1개동이 전소됐으며, 축사 안에 있던 닭 4만5000마리가 타 죽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법적신고 112 화재신고 119

## 전주시, 덕진 틈옴공간에서 '야호 아카데미'

방학을 앞둔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가 함께 자녀 교육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18일 야호학교 덕진 틈옴공간에서 부모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 청소년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형 창의교육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강연회인 '제6회 야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야호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중인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치유&힐링'이라는 기획 콘셉트와 '나를 알고 너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

행된 이날 야호 아카데미에는 소은숙 은숙아동청소년상담센터장과 안지연 엠유스토리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각각 '감정해우소'와 '음악을 듣다, 나를 듣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강연자에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들은 소규모 미술 집단을 이뤄 스스로 자기표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음악과 미술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나를 알고 주변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출장체력측정 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바쁜 업무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관공서 직원들의 체력을 관리한다.

시는 올해 '국민체력100 전주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평일 낮 시간에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장체력측정서비스와 맞춤형 건강관리 처방을 제공하는 '건강한 전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 '국민체력100'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체력관리와 건강 수준 향상,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시는 건강관리의 습관화를 목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참여 기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상자별 각 연령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등 체력항목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줄 계획이다.

또한 체력수준 우수자에 대해서는 체력수준에 따라 1~3등급까지 구분해 이를 인증하는 체력인증서도 발급해준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